

## MMPI 내용척도의 이해와 상담에의 활용

유 순 화<sup>†</sup>

부산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MMPI 내용척도의 필요성과 Wiggins 내용척도, MMPI-2 내용척도, 그리고 한국판 MMPI 내용척도를 소개하고, 상담 장면에서의 해석과 활용 방법 등을 논의함으로써 상담자들에게 MMPI 내용척도에 관한 이해와 활용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데 있다. 많은 상담자들이 자신들의 상담면접에서 MMPI를 사용하고 있으나 표준척도의 해석에 그칠 뿐이며 내용척도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현재 한국판 MMPI 내용척도를 개발하고 표준화하여 사용하려는 노력이 있으나 아직은 이에 관한 연구가 미미한 상태이다. MMPI 내용척도는 임상척도의 의미있는 해석과 내담자 이해의 증진에 큰 도움을 제공하며 상담연구의 주제로서도 가치 있는 영역이다. 앞으로 한국판 MMPI 내용척도에 관한 많은 이론적, 경험적 연구가 실시되고 실제 상담 장면에서 임상척도와 더불어 활용되면 내담자 이해뿐 아니라 전반적인 상담효과도 증진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주요어 : MMPI 내용척도, MMPI-2 내용척도, 한국형 MMPI 내용척도, 심리검사

---

<sup>†</sup> 교신저자 : 유 순 화, (604-765) 부산시 사하구 다대1동 자유아파트 101동 1202호  
전화 : 051)263-1344 E-mail : soonyoo@netian.com

현재 상담장면에서 활용되고 있는 심리검사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대부분의 상담자들은 자신들의 상담면접에서 심리검사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16개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실에 근무하는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최근에 실시된 한 연구(김계현, 김영빈, 2001)에 의하면 16개 전 기관에서 심리검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조사대상 상담자의 3/4 이상이 3사례 중 한 사례 이상에 검사를 사용한다고 말했고, 매 사례마다 검사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상담자도 26%에 이르렀다. 상담자들이 사용하는 심리검사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는 MBTI와 MMTIC, 문장완성검사, MMPI등이 있었으며(김계현, 김영빈, 2001), 그 중 MMPI(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는 미국 상담기관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검사로 보고 되었고(Watkins & Campbell, 1988),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성격검사이다.

MMPI는 성격장애에 대한 진단적 평가를 위해 1943년에 처음 발간되었다. 검사 척도의 개발방법은 철저히 경험적인 접근으로서, 정신병리적인 준거집단과 정상집단의 반응을 비교하여 다르게 대담하는 문항들을 선택하여 척도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험적 접근은 성격구조나 정신병리에 관한 이론과는 무관한 것으로, 내용이나 합리적 방법에 근거하여 개발되었던 이전의 검사 도구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었다(Butcher, Graham, Williams, & Ben-Porath, 1990). 즉, 경험적 척도의 의미는 그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성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 척도와 관련된 경험적인 자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었다(Butcher & Williams, 1992).

그러나 현장에서 검사를 활용하는 상담자, 임상가들과 연구자들은 문항내용을 고려하는 것이 MMPI 해석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

었고, 그에 따라 내용적 주제를 측정하는 몇몇 접근법들도 개발되기에 이르렀다. 그러한 노력들 가운데 포괄적이고 심리측정적으로 충실한 접근법으로 Wiggins 내용척도와 MMPI-2 내용척도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소수 연구자에 한정되어 있지만 한국판 MMPI 내용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가 행해졌다. 본 연구자는 이 글에서 내용척도의 필요성과 대표적인 내용척도들(Wiggins 내용척도와 MMPI-2 내용척도, 그리고 한국판 내용척도)의 개발과정과 심리측정적 특징, 그리고 해석방법 등을 논의하고 상담에의 활용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상담자들에게 MMPI 내용척도에 관한 이해와 활용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 내용척도의 필요성

MMPI의 경험적 접근은 그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방법이었다.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을 선택하는 데는 아무런 이론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았고 오직 준거집단과 정상집단이 다르게 대담한 문항들을 선택하였다. 검사제작자들은 문항의 내용에는 거의 집중하지 않았으므로 표준 임상척도의 대부분이 내용면에서 이질적인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Graham, 1993). 따라서 MMPI 표준척도를 해석할 때는 문항에 대한 응답들을 개인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로 고려하지 않았다. MMPI 문항에 대한 응답들은 개별 응답의 내용에 관계없이 내담자의 문제유형에 대한 징후로만 여겨졌다. 따라서 문항 내용상으로는 다르게 응답한 수검자들이 임상척도에서 같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실제로 MMPI를 사용하는 상담자, 임상가들이 검사를 해석하는 데 문항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많은 연구들이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내용의 중요성을 주장

하기 시작하였다(Jackson, 1971; Wiggins, 1969). 수검자가 자기보고를 통해 검사자에게 자신에 관해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있음이 분명한데, 경험적 척도들은 문항내용들의 이질성으로 인해 이를 간과하기 쉬웠고 상담자와 내담자간에 잘못된 의사소통으로 이끌 가능성이 있었다(안창일, 임영란, 1992). 수검자들이 문항에 반응함으로써 자신에 관해 전달하려는 내용은 그 개인이 반응한 문항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가능하다. 따라서 척도의 경험적 자료로부터 문제의 유형을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검자가 문항내용에 어떻게 응답하였는가를 검토하는 것도 검사의 의미있는 해석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MMPI 문항의 내용을 표준척도 해석에 연결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어왔다. 초기의 시도로는 결정적 문항(critical items)이나 Harris와 Lingo의 하위척도 등이 있었다. 결정적 문항은 수검자가 이들 문항에 답할 경우 즉각적인 개입이 요구되거나 정신병리의 지표가 된다고 판단되는 38개의 문항으로서, 검사자가 특히 주목해야 할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Harris와 Lingo의 하위척도는 10개의 임상척도 중 6개 척도에 대해서 내용상 동질적이거나 단일 특성을 반영하는 문항들을 선택하여 구성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의 시도들은 제한되고 비효과적 측정치들로 보고되곤 했다(Graham, 1990; Koss & Butcher, 1973).

MMPI 문항의 내용차원을 평가하려는 노력들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심리측정적으로 충실한 접근법을 사용한 것으로 Wiggins 내용척도와 MMPI-2 내용척도가 있다. 또한 한국에서도 MMPI-2와 국내 신판 MMPI를 대상으로 내용척도를 개발하고 표준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다음절에서 이들 척도들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논의하기로 한다.

## Wiggins 내용척도

Wiggins와 그의 동료들은 MMPI의 내용차원을 평가하는 심리측정적으로 충실한 척도의 개발과 해석에 크게 공헌했다. 그들의 업적은 MMPI 내용차원에 대한 가장 훌륭한 연구로 알려져 있다(Graham, 1987; Wiggins, 1969). Wiggins(1969)는 MMPI의 표준척도(4개의 타당도 척도와 10개의 임상척도)에서 똑같은 프로파일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내용척도 점수의 형태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그는 내용척도가 표준 MMPI 프로파일의 해석을 확대시키고 수검자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Wiggins(1969)는 처음 MMPI의 문항풀을 구성했던 26개 내용범주를 이용하여 척도개발을 시작했다. 정상인 대학생 집단을 사용하여 척도들의 내적합치도를 검토하였고, 두 개의 범주를 하나로 합치기도 하고, 한 내용범주에 속했던 문항을 다른 범주에 넣기도 하고, 또 새로운 범주를 만들기도 하면서 척도를 심리측정적으로 개선해 나갔다. 최종 13척도는 다소 독립적이면서 각 척도가 내적으로 일치하고, 전체 MMPI 문항의 상당부분을 반영하는 합리론적이고 심리측정적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13개 내용척도에는 사회 부적응(Social Maladjustment: SOC), 우울(Depression: DEP), 여성적 관심(Feminine Interests: FEM), 낮은 의욕(Poor Morale: MOR), 종교적 원리주의(Religious Fundamentalism: REL), 권위 갈등(Authority Conflict: AUT), 정신병적 경향성(Psychoticism: PSY), 기질적 증상(Organic Symptoms: ORG), 가족 갈등(Family Problems: FAM), 공격성표출(Manifest Hostility: HOS), 공포감(Phobias: PHO), 경조증적 경향(Hypomania: HYP), 건강 염려(Poor Health: HEA)가 포함되었다.

Wiggins의 내용척도는 별도의 정상집단과 정신 병리 집단에 의해 교차 타당화 작업을 거쳤다. Wiggins(1969)에 의하면 13척도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alpha)는 .505에서 .872의 분포였고 대부분의 척도가 .70을 넘었다. 남자 95명, 여자 108 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6주 간격)는 .73에서 .95의 분포였다.

내용척도의 점수를 다른 유사하거나 같은 특징을 측정하는 척도와 관련지어 본 연구들을 통해 내용척도의 타당도에 관한 몇 가지 근거자료가 제시되었다. Wiggins와 그 동료들은 Wiggins 내용척도의 점수를 Edwards Personal Preference Schedule, 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 Adjective Check List 등과 상관지어 보았다. 또한 Strong Vocational Interest Blank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측정하는 척도들, 그리고 그 외 다른 MMPI 척도와 상관을 내어보았다. 이러한 연구들로부터 발견된 수많은 유의한 상관관계는 Wiggins 내용척도의 타당도의 근거를 제공해 준다(Graham, 1987).

내용척도 점수에 이상이 있을 때는 내용척도에 속한 각 문항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척도의 사용자는 내용척도가 편파반응에 대해 민감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매우 높거나 낮은 점수는 타당성이 의심스럽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Wiggins의 T-점수가 70이상이거나 40 이하이면 매우 높거나 낮은 점수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러한 T-점수도 절대값으로만 고려하지 말고 다른 내용척도와 비교하여 상대적 수준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수검자의 내용척도 점수 중 Depression이 가장 높게 나온 척도로 T-점수가 60일 때, 만약 그 수검자가 다른 문제보다도 우울증을 더 많이 자기보고하고 있다면 그것은 관심을 가지고 해석해야 할 부분인 것이다(Friedman, Webb, & Lewak, 1989). 내용척도는 MMPI와 그의 다른 척도들 그리고 검사의 행동과

지도 함께 고려될 때 임상적 평가로서 가장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Wiggins 내용척도는 MMPI의 내용차원을 잘 대표하고 심리측정적으로 충실한 척도였으나, MMPI가 1989년에 수정됨으로 인해 MMPI-2의 내용차원을 적절하게 대표할 수 없게 되었다(Graham, 1993). MMPI를 재표준화하는 과정에서 기존 문항들이 수정되거나 삭제되고 새로운 문항이 첨가됨으로써, Wiggins 내용척도에 포함되었던 많은 문항들이 영향을 받아 MMPI-2 내용영역을 대표할 수 없게 된 것이다(Butcher et al., 1990). Kohutek (1992)은 MMPI-2 문항변화로 인해 Wiggins 내용척도 중 종교적 원리주의(REL)와 권위 갈등(AUT) 척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MMPI-2의 재표준화 과정에서 수정된 MMPI 내용차원을 대표하기 위해 Butcher 등(1990)은 MMPI-2 내용척도를 개발하였다.

## MMPI-2 내용척도

### MMPI-2 내용척도의 개발

Butcher 등(1990)은 합리적, 통계적 방법을 결합한 다단계, 다중전략 절차를 거쳐 MMPI-2 내용척도를 개발했다. 첫 단계는 내용영역을 합리적으로 파악하고 문항들을 각 영역에 배치하는 것이었다. Butcher 등은 처음 704문항(MMPI)의 550문항과 MMPI-2에 포함시키기 위해 고려 중이던 154개의 새로운 문항을 문항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22개의 가능한 내용범주들을 파악하였다.

2단계에서는 문항-척도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정신질환자 두 집단과 대학생 두 집단을 이용하여 내적 합치도를 떨어뜨리는 문항과 4개의 척도를 삭제하고, 냉소성(Cynicism) 척도를 추가하였다. 3단계는 지금까지 제작된 내용차원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하

고, 통계적으로는 상관이 있으나 내용적으로 부적절한 문항을 삭제하는 단계였다. 4단계는 다른 척도와 높은 상관을 보이는 문항들을 제거하고 내용척도의 일률적인 T-점수를 도출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문항내용에 따라 각 내용 척도들을 서술하였다. 이렇게 다단계 절차를 거쳐 내적으로 일치되고,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며 MMPI-2 문항들의 내용차원을 대표하는 15개 척도가 산출되었다. 척도명은 다음과 같다. 불안(Anxiety: ANX), 공포감(Fears: FRS), 강박성(Obsessiveness: OBS), 우울(Depression: DEP), 건강염려(Health Concerns: HEA), 사고의 기이성(Bizarre Mentation: BIZ), 적대감(Anger: ANG), 냉소성(Cynicism: CYN), 반사회성(Antisocial Practices: ASP), A 유형(Type A: TPA), 낮은 자존감(Low Self-Esteem: LSE), 사회적 불편감(Social Discomfort: SOD), 가족내 갈등(Family Problems: FAM), 직무곤란(Negative Work Attitudes: WRK), 부정적 치료예후(Negative Treatment Indicators: TRT).

척도끼리 개념적으로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문항중복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문항들이 MMPI-2 내용척도에서 중복이 되었다(Greene, 1991).

MMPI-2의 기준집단이었던 남자 1,138명, 여자 1,462명이 MMPI-2 내용척도의 기준개발에도 사용되었다. 따라서 MMPI-2 임상척도에 사용된 T-점수가 내용척도에도 그대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임상척도와 내용척도의 T-점수를 바로 비교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Butcher, 1990; Graham, 1993).

#### MMPI-2 내용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Butcher et al.(1990)은 MMPI-2 내용 척도가 MMPI-2 기준집단을 통해 산출한 내적 합치도 계

수가 .68에서 .86 사이라고 보고했다. 이러한 수치는 대체로 이 내용 척도가 임상척도보다 내적 합치도가 높고 Wiggins 내용척도와는 비슷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내적으로 일치된 척도는 해석자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혹은 직관적으로 쉽게 해석할 수 있게 해 준다(Butcher & Williams, 1992). 또 기준집단의 일부인 남자 82명, 여자 111명을 대상으로 내용척도의 검사-재검사(평균 9일 간격) 신뢰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 .78에서 .91의 분포였다(Butcher et al., 1990). 이러한 계수들은 내용척도들이 상당히 안정적이며 내용척도가 표준임상척도보다 더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말해준다(Graham, 1993).

Butcher et al.(1990)은 MMPI-2 내용척도를 위한 타당도 자료도 제시했다. 내용척도와 MMPI-2 표준척도와의 상관연구를 실시한 결과, 몇몇 내용척도와 표준척도가 높은 상관을 보여 비슷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음이 알려졌다. 예를 들어 HEA 척도와 Hs 척도는 남자의 경우 .83, 여자의 경우 .91의 상관을 보여 두 척도가 건강염려라는 비슷한 개념을 측정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SOD 척도와 Si 척도도 .85(남자)와 .84(여자)의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다른 내용척도는 비슷한 이름을 가진 표준척도와는 높은 상관을 보이지 않아 대체로 다른 특징을 측정하는 것을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DEP와 D 척도간의 상관은 .52(남자)와 .63(여자)으로서 두 측정치를 같은 척도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상과 같은 상관자료들은 내용척도의 구성타당도의 근거가 된다.

그 외에도 많은 연구들이 MMPI-2 내용척도와 다른 관련된 척도들과의 상관을 보여줌으로서 내용척도의 타당성을 지지하였다. Schill과 Wang (1990)은 ANG 척도가 Spielberger의 분노표현척도와 정적 상관이, 분노조절척도와는 부적상관이 있다고 보고했다. 남자의 경우에는 ANG 척도가

언어적 공격성 표현과, 여자의 경우에는 신체적인 공격성 표현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고 한다. Boone(1994)은 DEP 척도의 공인타당도와 구성 타당도를 검토한 결과 우울증, 절망감, 낮은 자존감, 자살의향 등과의 상관계수가 .58에서 .6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고 한다.

Quereshi와 Kleman(1996) 또한 MMPI-2의 몇몇 척도에 대해 Michill Adjective Rating Scale(MARS)와의 상관연구를 실시하였다. 288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그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a) ANX와 DEP척도는 MARS의 불행점수와 정적 상관이 있었고, (b) SOD는 외향성과 부적상관이 있었으며, (c) ANG와 TPA는 자기주장성과 정적 상관이, (d) WRK는 생산적 인내심과 부적상관이 있음이 나타났다.

한편 Ben-Porath, Butcher와 Graham(1991)은 MMPI-2 내용척도가 정신병리의 변별적 진단을 도와주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정신과 입원환자 중 정신분열증과 주요우울증 환자에게 MMPI-2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임상척도와 내용척도가 모두 이 두 집단을 변별진단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임상척도를 통해 얻는 정보 이외의 정보까지 내용척도가 제공해줌으로써 진단의 변별력을 높였다고 한다.

Boone(1994)의 연구에서도 DEP 척도가 정신질환자 집단(우울집단과 비우울집단)과 자살위험(위험함과 위험하지 않음)을 성공적으로 변별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arrios(2001)는 자살의향을 평가하는 데 MMPI 표준척도에서 제공되는 정보 외에 15개 내용척도가 추가적인 기여를 하는지를 검토하여 내용척도가 변별타당도를 높이는지를 조사하였다. 여자 139명, 남자 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자는 ANG 척도가, 남자는 TPA 척도가 자살의향을 예견하는 데 표준척도 외에 추가적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MPI-2 내용척도는 그 외에도 다양한 집단들에 실시되어 변별력을 인정받았다(Graham & Barthlow, 1999; Greenblatt & David, 1999; Munley & Busby, 1997).

그러나 MMPI-2 내용척도는 문화적, 민족적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Whitworth와 Unterbrink(1994)의 연구에 의하면, MMPI-2 내용척도를 백인 미국인과 히스패닉 미국인에게 실시해본 결과 15개 모든 척도에서 히스패닉 미국인들의 점수가 상승했으며 LSE와 SOD를 제외한 13개 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연구자들은 비록 히스패닉 미국인들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높기는 하였으나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그리 큰 차이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민족에게 적용되었을 때 척도의 점수가 대부분의 영역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면 이는 분명히 유의해야 할 부분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미국 내 각 문화권, 민족에 맞는 재표준화나 심리측정적 요인들의 재규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Lucio-G.M. & Palacios, 199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MMPI-2 내용척도는 심리측정적인 면에서 충실한 척도임이 꾸준히 밝혀지고 있다. 상관연구를 통하여 신뢰도나 타당도를 증명하는 연구가 대체로 많이 이루어졌고, 특정 집단에 MMPI-2를 실시하여 내용척도가 임상척도보다 변별력이 더 뛰어나거나 혹은 임상척도와 함께 사용되면 변별력을 상승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임상척도에 비해 상담자나 연구자의 관심을 덜 받고 있는 현실로 인하여 아직까지 내용척도에 관한 연구의 편수가 충분하지 않다. 또한 15개 내용척도 중 일부(ANG, ASP, DEP 등)를 제외한 대부분의 척도들이 개별 연구의 주제로서 신뢰도나 타당도, 유용성 등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분야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들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판 MMPI 내용척도

지금까지 연구된 한국판 MMPI 내용척도는 2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이용남, 한규석, 염시창, 오익수(1993)가 미국 MMPI-2를 내용척도를 중심으로 한국에서의 재표준화를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척도는 이후 단 한 편의 연구(박윤성, 1994)에 사용되었을 뿐, 더 이상의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하나의 척도는 임영란(1992)에 의해 개발된 “한국형 MMPI 내용척도”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1965년 정범모, 이정균, 진위교에 의해 처음으로 한국판 MMPI 표준화가 이루어졌고, 1989년에 김영환 등에 의해 재표준화된 신판 MMPI(김영환 등, 1989)가 출판되었다. 한국형 MMPI 내용척도는 임영란(1992)이 신판 MMPI를 대상으로 개발하였으며 타당화 작업, 그리고 표준화 연구를 끝마친 상태이다(임영란, 안창일, 1992; 임영란, 김진영, 안창일, 1997).

임영란 등(1997)에 의하면 한국형 내용척도는 앞서 제시된 MMPI-2 내용척도 개발방법을 따라 다중전략, 다단계 절차로 개발되었고, 구성타당도를 고려하여 문항-척도간 통계치를 척도 구성 단계에서부터 국내 표본을 이용하여 검증하였으며 척도명은 MMPI-2 척도명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단 국내 신판 MMPI 문항 내용으로는 측정이 불가능한 TPA(Type A) 척도는 Wiggins 내용척도에서 사용하던 HYP(Hypomania)로 대체되었다.

한국형 MMPI 내용척도는 불안(Anxiety: ANX), 공포감(Fears:FRS), 강박성(Obsessiveness: OBS), 우울(Depression: DEP), 건강염려(Health: HEA), 사고

의 기이성(Bizarre Mentation: BIZ), 적대감(Anger: ANG), 냉소성(Cynicism: CYN), 반사회성(Antisocial Practices: ASP), 경조증적 경향(Hypomania: HYP), 낮은 자존감(Low Self-Esteem: LSE), 사회적 불편감(Social Discomfort: SOD), 가족내 갈등(Family Problems: FAM), 직무 곤란(Work Interference: WRK), 부정적 치료예후(Negative Treatment Indicators: TRT) 척도 등 15개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글의 부록에 MMPI-2 내용척도와 한국형 내용척도의 각 척도별 문항의 예가 제시되어 있다.

임영란과 안창일(1992)에 의하면 한국형 MMPI 내용척도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계수가 정상인 집단에서 .68~.87, 대학생집단에서 .64~.87, 정신과 환자집단에서 .74~.92의 분포를 보였다고 한다. 이 수치는 Wiggins 내용척도나 MMPI-2 내용척도와는 유사하고 국내 신판 MMPI 임상척도보다는 약간 높은 것이다.

신판 MMPI 임상척도와와의 상관관계를 알아 본 결과, 내용척도는 상응하거나 관련된 임상척도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임영란, 안창일, 1992). 반면 DEP 척도는 D 척도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나 수치로는 중간정도의 상관(남자: .51, 여자: .48)을 보여 MMPI-2의 경우와 같이 이들 두 척도가 다소 독립적인 구성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임상적 예견과 관련된 변별타당도 측면에서도, 우울증 두 하위집단(우울성 신경증 집단과 주요 우울증 집단)을 변별하는 데 내용척도(72.4%)가 임상척도(63.22%)보다 더 정확한 판별율을 보였고, 임상척도에 내용척도를 보완해서 사용한 경우, 가장 높은 판별율(83.91%)을 보였다고 한다(임영란, 안창일, 1992).

이상의 연구결과는 한국형 MMPI 내용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비교적 양호한 편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은 전적으로 이 척도를 직접 개발한 임영란 등의 연구에 의한 결

과이며 아직까지 다른 연구자에 의해 연구된 바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적 연구에 근거한 신뢰도나 타당도가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앞으로 척도의 개발자들뿐 아니라 다른 연구자와 상담자들에게도 널리 사용되고 연구되어 척도의 신뢰성이나 예측가능성, 구성개념의 타당성, 변별 능력 등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 내용척도의 해석과 활용

#### 내용척도의 해석

MMPI 내용척도의 점수를 해석할 때는 각 척도 내 문항의 내용을 잘 검토하고, 문항에 대한 반응은 곧 수검자의 느낌과 성격유형, 과거 혹은 현재의 문제에 관한 의사소통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Butcher & Williams, 1992; Graham, 1993). 즉, 내용척도 해석의 주요 가정은 수검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 신념, 문제 등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그러한 것들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검사에 임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항에 대한 반응들은 유추적 해석이 필요없이 그 척도를 구성하는 태도, 증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체로 MMPI-2 내용척도의 T-점수가 65 이상(한국형 MMPI 내용척도는 70T점수 이상)이면 임상적인 해석이 필요하다(Butcher, 1990; Graham, 1993). 예로서, HEA의 T-점수가 65인 내담자는 위장증세, 신경성 문제, 청력이나 시력 같은 감각기관 문제, 호흡곤란 등 몇 가지 신체 조직에 걸쳐 과도한 불평을 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다. 그런 내담자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 염려를 많이 하고, 일반인들보다 더 자주 심하게 아프고,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불평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내용척도를 해석할 때는 수검 태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내용척도들은 안면타당도가 높아 내용이 뚜렷한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용척도의 점수는 수검태도와 관련된 의식적인 왜곡에 민감하다. 방어적인 태도로 MMPI-2에 응답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척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되며, 반대로 자신의 문제를 과장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척도에서 점수가 상승된다. 예를 들어 어떤 강압에 의해서나 혹은 인사선발의 목적으로 MMPI-2에 응답하는 사람은 특별한 인상을 주기 위해 왜곡된 응답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문제가 없는 상태로 보여지도록 반응하여 내용척도의 점수들이 다소 낮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협조적인 수검자의 점수만큼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Butcher & Williams, 1992; Graham, 1993). 그러므로 내용척도를 해석하기 전에 MMPI 표준척도 중 3개의 타당도 척도 점수를 고려하여 반응의 타당성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내용척도를 해석할 때 주의할 것은 우울(EP) 같은 척도가 비슷한 이름을 가진 임상척도인 우울증(D) 척도와 혼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D 척도에서는 점수가 상승되었으나 EP는 중간 정도이거나 낮을 수 있다. MMPI-2의 경우 EP 척도에 속하는 33개 문항 가운데 D 척도(57문항)와 공유하는 문항이 9개뿐이어서 구성개념이 다르므로, 이들 두 척도가 실제로는 다른 임상적 특징들을 측정하고 있고, 상관면에서도 중간 정도(.50-.6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를 해석하는 상담자가 이들 두 척도가 이름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 해석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다음은 내용척도에 대한 일반적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MMPI-2 내용척도와 한국형 내용척도는 크게 4개의 영역을 평가하고 있으며 그것은 (1) 내적인 증상행동들, (2) 외적인 공격성향, (3) 부정

적 자아상, (4) 일반적인 문제들을 포함한다(임영란 외, 1997; Butcher et al., 1990).

첫째, 내적인 증상행동은 6개의 척도(ANX, FRS, OBS, DEP, HEA, BIZ)로 이루어져 있고 내담자가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증후군이나 부적응적인 인식들을 말해준다. 이러한 척도들이 상승되면 내적인 문제행동이나 부적응적인 신념, 결핍된 사고 등에 대한 단서가 된다.

둘째, 외적인 공격성향에 관련된 척도는 4개(ANG, CYN, ASP, TPA)로서 행동조절과 감정의 표현 등에 관한 것이다. 이 척도들의 점수는 수검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나타내준다. 예를 들어 이 척도들이 상승되면 수검자가 생활 상황의 요구를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부적응적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셋째, 부정적 자아상군에는 LSE 척도만이 관련된다. 이 척도는 내담자가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관하여 말해준다. 또한 수검자가 삶의 요구들을 얼마나 자신감있게 처리하느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넷째, 일반적인 문제영역에는 SOD, FAM, WRK, TRT가 속한다. 이 척도들은 단순한 성격특성이나 태도가 아닌 복잡한 문제영역이다.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 가족문제에 대한 견해나 걱정, 직장이나 성취도와 관련된 문제와 부정적 태도, 심리적 치료개입을 방해할 수 있는 변화과정에 대한 부정적 관점 등을 요약해 준다.

#### 상담장면에서 MMPI 내용척도의 활용

무엇보다도 내용척도는 임상척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즉 상승된 임상척도의 의미를 더욱 정교하고 명백하게 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Pd 점수가 높고 ASP 점수가 낮으며 FAM 점수가 높다면, Pd 점수가 높은 이유는 반사회적 특징보다는 가족문제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

다. 또 Pt 척도가 높지만 OBS가 낮은 내담자는 지나친 생각이나 강박적 행동과 같은 강박적 특징보다는 일반적인 불안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Butcher & Williams, 1992).

두 번째로, 상담장면에서 MMPI를 실시한 후 검사결과를 내담자에게 알려줄 때 내용척도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Butcher et al., 1990). 내용척도들은 합리적, 이성적으로 정의되었고 내적합치도가 높기 때문에 상승된 내용척도는 곧바로 그 척도를 구성하는 태도, 신념, 증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척도의 점수가 상승되었을 경우 해석에 별다른 유추가 필요없이 내담자에게 그대로 전달가능하다. 물론 결과를 알려줄 때는 내담자가 쉽게 받아들이고 상담의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치료적 관계가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MMPI를 실시하는 상담자들은 내용척도의 점수를 수검자와 상담자 간의 직접적 의사소통으로 간주해야 한다. 내용척도의 상승된 점수에 의해 반영되는 내용은 수검자가 상담자에게 알리려고 하는 특징들이다. 내용척도의 결과를 나누면서 내담자들이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담자가 알고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치료적인 관계도 더욱 향상될 것이다.

세 번째로, 상담이나 심리치료의 장면에서 상담자는 상담계획을 세우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 MMPI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내용척도는 이러한 상담계획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Butcher, 1999). 내용척도는 내담자가 평가과정을 통해 상담자와 나누고자 하는 내용들을 기술하는 “요약 점수(summary scores)”이다(Butcher, 1999, p. 172). 예를 들어, DEP나 ANX와 같은 증상 척도가 유의미하게 상승되었다면 앞으로 상담에서 꼭 다루어야 할 초점이 되는 중요한 증상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네 번째, 내용척도는 비임상적인 정상집단을 위한 MMPI 검사 해석에 매우 유용하다(최윤경 외, 1993; Butcher et al., 1990). MMPI의 기존용도는 성격장애나 정신병리적 진단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임상척도의 해석이 우선이었다. 그러나 정상집단의 성격평가를 위해 MMPI를 사용할 경우 임상척도상으로는 해석해야 할 만큼 상승된 척도가 없더라도 내담자가 어떤 특정영역에 계속 반응한다면 내용척도가 상승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내담자가 특정 내용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 그것은 그 척도를 구성하는 태도나 문제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 비해 그러한 특징들을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마지막으로, MMPI 내용척도는 상담연구의 훌륭한 주제가 된다. Butcher et al.(1993)에 의하면 내용척도는 연구에서 측정변수로 활용 가능하다. TRT 척도 같은 측정치들은 상담이나 재활치료의 효과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정보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직업적응에 관련된 성격특성과 태도를 측정하는 성격척도인 WRK는 직업적응연구에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변인이다. 직업 수행에 있어서 성격요인은 임용 전 선발과정이나 임용 후 배치에 관한 연구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상담자들이 상담에서 MMPI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내용척도를 이용한 치료관계의 향상이나 내용척도를 이용한 내담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상담효과에 미치는 영향 등, 상담과정에 관계된 많은 요소들 또한 좋은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 맺는 말

지금까지 MMPI 내용척도의 필요성과 Wiggins

내용척도, MMPI-2 내용척도, 한국판 MMPI 내용척도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상담장면에서 MMPI 내용척도를 해석하는 지침과 활용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많은 상담자들이 자신들의 상담면접에서 MMPI를 사용하고 있으나 임상척도의 해석에 그칠 뿐 내용척도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한국판 MMPI 내용척도를 개발하고 표준화하는 연구가 있었지만 아직은 매우 미미한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내용척도의 결과는 임상척도의 의미있는 해석과 내담자 이해의 증진에 큰 도움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상담연구의 주제로서도 매우 가치있는 영역이라 여겨진다. 앞으로 MMPI 내용척도의 유용성에 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가 많이 행해지고, 더불어 실제 상담장면에서 임상척도와 내용척도가 함께 사용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김영빈, 김계현 (2001). 청소년 상담에서의 심리검사 활용실태: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실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 149-162.
- 김영환, 김재환, 김중술, 노명래, 신동균, 염태호, 오상우 (1989). 다면적 인성검사 실시요강. 한국 가이드스.
- 박윤성 (1994). 국민학생의 MMPI-2 상의 성격특성과 학교생활 적응도와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용남, 한규석, 염시창, 오익수 (1993). MMPI-2의 재표준화에 관한 기초내용-내용척도를 중심으로-, 대학생활연구, 5, 191-243.
- 임영란 (1992). 신판 MMPI 한국형 내용척도의

- 타당화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임영란, 안창일 (1992). MMPI 내용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1, 42-64.
- 임영란, 김진영, 안창일 (1997). 한국형 MMPI 내용척도의 표준화 연구: 기준 및 예비적 해석자료.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 131-149.
- 최윤경, 임영란, 박병관, 안창일, 최정운, 김재환 (1993). MMPI 내용척도와 성격장애척도의 구조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2, 1-15.
- Barrios, F. X. (2001). Assessment of suicidal ideation in young men and women: The incremental validity of the MMPI-2 content scales. *Death Studies*, 25, 593-607.
- Ben-Porath, Y. S., Butcher, J. N., & Graham, J. R. (1991). Contribution of the MMPI-2 content scales to the differential diagnosis of schizophrenia and major depression. *Psychological Assessment*, 4, 634-640.
- Boone, D. E. (1994). Validity of the MMPI-2 depression content scale with psychiatric inpatients. *Psychological Reports*, 74, 159-162.
- Butcher, J. N. (1990). *MMPI-2 in psychological treatme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utcher, J. N. (1999). *A beginner's guide to the MMPI-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utcher, J. N., Graham, J. R., Williams, C. L., & Ben-Porath, Y. S. (1990). *Development and use of the MMPI-2 content scales*.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utcher, J. N., & Williams, C. L. (1992). *Essentials of MMPI-2 and MMPI-A interpretation*.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Friedman, A. F., Webb, J. T., & Lewak, R. (1989). *Psychological assessment with the MMPI*.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Graham, J. R. (1987). *The MMPI: A practical guid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raham, J. R. (1990). *MMPI-2: assessing personality and psychopathology*. NY: Oxford University Press.
- Graham, J. R. (1993). *MMPI-2: Assessing personality and psychopathology* (2n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raham, J. R., & Barthlow, D. L. (1999). Incremental validity of the MMPI-2 content scales in an outpatient mental health setting. *Psychological Assessment*, 11, 39-47.
- Greenblatt, R. L., & Davis, W. E. (1999). Differential diagnosis of PTSD, schizophrenia, and depression with the MMPI-2.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5, 217-223.
- Greene, R. L. (1991). *The MMPI-2/MMPI: An interpretive manual*. Needham Heights, Massachusetts: Allyn and Bacon.
- Jackson, D. (1971). The dynamics of structured personality tests: 1971. *Psychological Review*, 78, 229-248.
- Kohutek, K. J. (1992). Wiggins content scales and the MMPI-2.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8, 215-218.
- Koss, M. P., & Butcher, J. N. (1973). A comparison of psychiatric patients' self report with other sources of clinical inform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7, 225-236.
- Lucio-G. M. E., & Palacios, H. (1999). MMPI-2 with Mexican psychiatric inpatients: Basic and content scale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5, 1541-1552.

- Munley, P. H., & Busby, R. M. (1997). MMPI-2 findings in schizophrenia and depression. *Psychological Assessment, 9*, 508-511.
- Quereshi, M. Y., & Kleman, R. (1996). Validation of selected MMPI-2 basic and content scales. *Current Psychology, 15*(3), 249-253.
- Schill, T., & Wang, S. (1990). Correlates of the MMPI-2 Anger content scale. *Psychological Reports, 67*, 800-802.
- Watkins, C. E., Jr., & Campbell, V. L. (1988). Counseling psychologist's uses of and opinions about psychological tests: A contemporary perspectiv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6*, 476-486.
- Wiggins, J. S. (1969). Content dimensions in the MMPI. In J. N. Butcher (Ed.), *MMPI: Research developments and clinical applications*. New York: McGraw-Hill.
- Whitworth, R. H., & Unterbrink, C. (1994). Comparison of MMPI-2 clinical and content scales administered to Hispanic and Anglo-Americans.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16*(3), 255-264.
- 원고접수일 : 2002. 6.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2. 11. 25  
게재결정일 : 2002. 12. 3

K C I

## Understanding and Using the MMPI Content Scales

Soon-Hwa Yoo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n understanding and a basis of practical interpretation and use of the MMPI content scales to practicing counselors by describing th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al properties of Wiggins content scales, MMPI-2 content scales, and a Korean version of MMPI content scales and by discussing how to interpret and use the scales. Many counselors are using MMPI in their counseling interviews, but the interpretation has been limited to the standard scales. Also,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by the researchers on MMPI content scales. Actually, consideration of MMPI content scales significantly contributes to the interpretation of MMPI clinical scales and to the understanding clients in counseling interviews. In addition, the content scales are a great area of counseling research. Research attention to and the use of the MMPI content scales would enhance general counseling effect as well as client understanding.

*Key Words* : MMPI-2 content scales, MMPI-2 content scales, Korean version of MMPI content scales, psychological tests.

부 록

MMPI 내용척도와 한국형 MMPI 내용척도의 문항예

척도	MMPI-2 내용척도		한국형 MMPI 내용척도	
	문항수	문항예	문항수	문항예
ANX(불안)	23	I work under a great deal of tension.	22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손이 떨릴 때가 많다.
FRS(공포감)	23	I am afraid when I look down from a high place.	27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 겁이 난다.
OBS(강박성)	16	I usually have a hard time deciding what to do.	19	엄두를 못 내서 며칠,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일을 못하는 때가 있다.
DEP(우울)	33	Most of the time I feel blue.	29	나는 항상 우울한 편이다.
HEA(건강염려)	36	I am troubled by attacks of nausea and vomiting.	37	구역질이 나고 토해서 괴롭다.
BIZ(사고의 기이성)	24	When I am with people, I am bothered by hearing very strange things.	36	아주 기이하고 이상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ANG(적대감)	16	I easily become impatient with people.	17	사람들에게 화를 잘 낸다.
CYN(냉소성)	23	I have often met people who were supposed to be experts no better than I.	19	남이 나에게 잘 해 줄 때는 숨은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하곤 한다.
ASP(반사회성)	22	In school I was sometimes sent to the principal for bad behavior.	22	학교 다닐 때 말썽을 일으켜서 교무실에 불려간 적이 가끔 있다.
TPA(A유형)	19	It makes me nervous to have to wait.		없는 척도임
LSE(낮은 자존감)	24	I certainly feel useless at times.	23	나는 정말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가 있다.
SOD(사회적 불편감)	24	I find it hard to make talk when I meet new people.	25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과는 이야기하기가 힘들다.
FAM(가족내 갈등)	25	At times I have very much wanted to leave home.	20	때때로 집을 몹시 떠나고 싶을 때가 있다.
WRK(직무곤란)	33	I find it hard to keep my mind on a task or job.	27	우리 가족들은 내가 택한 직업(또는 택하려는 직업)을 좋아하지 않는다.
TRT(부정적 예후치료)	26	No one seems to understand me.	18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아서 괴롭다.
HYP(경조증적 경향)		없는 척도임	26	때로는 원기 왕성해서 며칠씩 자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은 때가 있었다.